

# 차(茶) 산업의 동향 및 시사점<sup>1)</sup>

이동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은 식품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심층분석하여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이의 일환으로 2018년 2월부터 식품산업 동향 및 정보 분석 결과를 매월 이메일을 통해 ‘식품외식정보 웹진’으로 배포하고 있음.
- 이번 식품외식정보 웹진 제 12호에서는 차(茶) 산업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 판매, 수출입, 시장 트렌드 등 차 산업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제시함.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와 소비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수립 및 산업 전략 마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함께 제시함.

## 1. 차류 가공업 개요

- 차류 가공업의 사업체 수는 2016년 621개에서 2021년 958개로 2016년 대비 54.2% 증가하였으며, 이는 동기간 식료품 제조업의 사업체 수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차류 가공업의 꾸준한 산업 확대를 보여줌. 그러나 2023년 차류 가공업의 사업체 수는 882개로 전년 대비 9.2% 감소한 반면, 동기간 식료품 제조업의 사업체 수는 6.2% 감소함.
  - 차류 가공업의 사업체 수는 전체 식료품 제조업의 1% 내외 수준이며, 2020년 이후부터는 1.3%를 유지함.

1) ‘차류(茶類)’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생산실적」 통계 기준에 따라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① 침출차는 식물의 어린싹, 잎, 꽃, 줄기, 뿌리, 열매 또는 곡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뒤, 물에 침출해 그 여액을 응용하는 기호성 식품을 의미함. ② 액상차는 식물성 원료를 주재료로 하여 추출액·농축액·분말 등으로 가공하거나, 여기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해 시럽상 또는 액상의 형태로 제조된 기호성 식품을 지칭함. ③ 고형차는 식물성 원료를 분말, 과립 등의 고형 형태로 가공한 기호성 식품으로, 일반적으로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는 음용 형태로 소비됨. 이에 따라 본 원고에서는 녹차, 홍차, 보리차, 옥수수차, 유자차, 꿀차, 인삼차 등 국내 통계에 수록된 주요 품목을 포함하되, 차 산업 통계상, 전통차에 한정하지 않고 차류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차류 가공업의 종사자 수는 2016년 4,030명에서 2021년 4,719명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는 종사자 수가 4,049명으로 2016년 수준으로 회귀함.
  - 차류 가공업의 종사자 수가 전체 식료품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3%로 정점을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4년 기준 1.1%를 기록함.
- 차류 가공업의 업체당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차류 가공업은 2016년 6.5명에서 2023년 4.6명으로 감소한 반면, 식료품 제조업은 2016년 5.6명에서 2021년까지 소폭 하락하다가 2022년 이후부터 오히려 증가세를 보임.
  - 차류 가공업은 단위 사업체당 고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이는 자동화 확산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 축소로 인한 현상으로 보임.

### ■ 차류 가공업 사업체 수 · 종사자 수 및 식료품 제조업 대비 비중

단위: 개, 명, %

구분		2016	2020	2021	2022	2023
사업체수	식료품 제조업(A)	57,734	70,089	71,982	72,453	67,945
	차류 가공업(B)	621	913	958	971	882
	B/A	1.1	1.3	1.3	1.3	1.3
종사자수	식료품 제조업(C)	324,392	370,629	374,128	378,036	372,820
	차류 가공업(D)	4,030	4,544	4,710	4,640	4,049
	D/C	1.2	1.2	1.3	1.2	1.1
	업체당					
	식료품 제조업	5.6	5.3	5.2	5.2	5.5
	차류 가공업	6.5	5.0	4.9	4.8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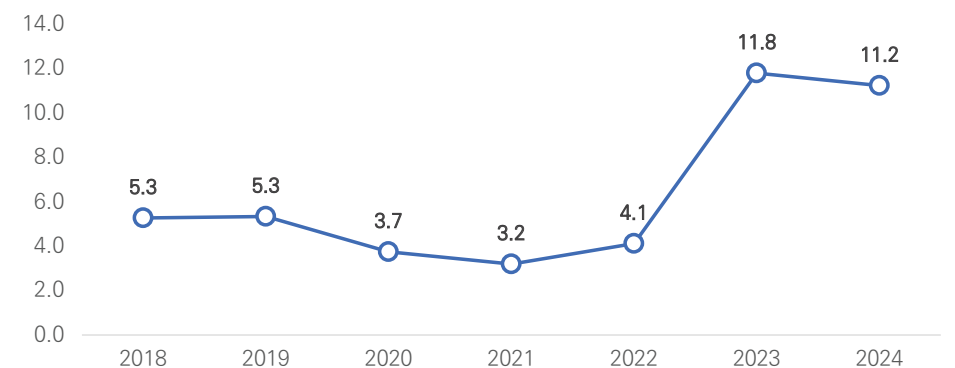
주: 2019년까지는 조사기반, 2020년부터는 등록기반 기준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https://kosis.kr/>)를 기초로 저자 작성

- 차류 가공업의 가동률은 2018년 5.3%에서 2021년 3.2%를 기록한 이후 증가 추세로, 최근 들어서는 11%대의 가동률을 기록함. 전반적으로 차류 가공업체의 가동률이 낮은 것은 생산 설비가 차류 외 다른 음료도 함께 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전체 생산능력 대비 차류 생산량이 저조하기 때문임.

### ■ 차류 가공업의 가동률 추이

단위: %



주: 가동률 = (생산량/생산능력)×10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생산실적」, 각 연도.

- 차류 가공업체의 가동률이 2023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생산능력이 전년 대비 59.8% 감소한 반면, 생산량은 같은 기간 15.2%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23년 차류 가공업체의 생산능력 감소 주요 원인은 전체 생산능력에서 86~93%대를 차지하는 침출차와 액상차 생산능력이 각각 91.9%, 49.5%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19 종료 이후 차 소비 감소와 고금리 등 원가 상승으로 중소규모 차류 가공업체 수가 감소하고, 최근 차 대체 음료(콤부차, 프로틴 음료 등) 수요가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차류 생산라인이 음료류 등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 차류 가공업의 생산능력 추이

단위: 만 톤

구분	전체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생산능력	전년대비 증감률	생산능력	전년대비 증감률	생산능력	전년대비 증감률	생산능력	전년대비 증감률
2018	880.75	-	36.87	-	723.54	-	120.35	-
2019	904.66	2.7%	35.82	-2.8%	761.94	5.3%	106.89	-11.2%
2020	1,304.18	44.2%	40.28	12.4%	1,183.72	55.4%	80.18	-25.0%
2021	1,723.72	32.2%	495.90	1131.0%	1,018.24	-14.0%	209.58	161.4%
2022	1,504.73	-12.7%	289.29	-41.7%	1,071.03	5.2%	144.41	-31.1%
2023	605.13	-59.8%	23.41	-91.9%	540.39	-49.5%	41.33	-71.4%
2024	519.63	-14.1%	24.37	4.1%	454.98	-15.8%	40.27	-2.6%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생산실적」, 각 연도.

## 2. 차류 가공업의 고용 현황

- 차류 가공업의 종사자 규모별로는 2023년 기준 종사자 수 1~4명이 전체의 79.0%를 차지하며, 소규모 인력 중심의 영세 산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연도별 비중 추이를 보면, 2016년 70.4%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 76.3%, 2021년과 2022년에는 79.9%로 정점을 기록한 뒤,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종사자 수 5~9명 사업체는 2019년 20.0%에서 2023년 9.6%로 11.4%p 감소하였으며, 10~19명 규모 사업체는 2019년 이후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2023년 6.5%로 2019년 대비 0.1%p 증가함.
- 종사자 수 20명 이상 사업체 비중은 2023년 기준 전체의 4.9%에 불과하며, 50명 이상 규모의 업체는 2023년 기준 0.9%에 그침.

Ⅱ 차류 가공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4명	437 (70.4)	433 (68.0)	450 (67.6)	483 (67.0)	697 (76.3)	765 (79.9)	776 (79.9)	697 (79.0)
5~9명	103 (16.6)	125 (19.6)	125 (18.8)	144 (20.0)	130 (14.2)	97 (10.1)	96 (9.9)	85 (9.6)
10~19명	36 (5.8)	37 (5.8)	37 (5.6)	46 (6.4)	45 (4.9)	45 (4.7)	52 (5.4)	57 (6.5)
20~49명	34 (5.5)	31 (4.9)	44 (6.6)	39 (5.4)	29 (3.2)	40 (4.2)	36 (3.7)	35 (4.0)
50~99명	8 (1.3)	9 (1.4)	8 (1.2)	8 (1.1)	11 (1.2)	9 (0.9)	9 (0.9)	7 (0.8)
100~299명	3 (0.5)	2 (0.3)	2 (0.3)	1 (0.1)	1 (0.1)	2 (0.2)	2 (0.2)	1 (0.1)
계	621 (100.0)	637 (100.0)	666 (100.0)	721 (100.0)	913 (100.0)	958 (100.0)	971 (100.0)	882 (100.0)

주: 2019년까지는 조사기반, 2020년부터는 등록기반 기준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https://kosis.kr/>)를 기초로 저자 작성.

- 차류 가공업의 종사자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2016~2020년까지는 여성 종사자 비중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이후 2021년에는 남녀 비중이 균형을 이루었고, 2022년에 남성 비중이 51.0%로 높았으나, 2023년에는 여성 비중이 소폭 우세로 전환됨.<sup>2)</sup>
  - 코로나19 기간 동안 종사자 수가 증가한 것은 이 기간 동안 건강과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차류 제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차류 제품 생산 설비가 확대되면서 노동력이 재배치된 결과로 판단됨.

Ⅱ 차류 가공업의 종사자의 성별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남자	1,882 (46.7)	1,945 (48.8)	2,145 (48.8)	1,973 (44.6)	2,024 (44.5)	2,353 (50.0)	2,366 (51.0)	1,955 (48.3)
여자	2,148 (53.3)	2,040 (51.2)	2,249 (51.2)	2,446 (55.4)	2,520 (55.5)	2,357 (50.0)	2,274 (49.0)	2,094 (51.7)
계	4,030 (100.0)	3,985 (100.0)	4,394 (100.0)	4,419 (100.0)	4,544 (100.0)	4,710 (100.0)	4,640 (100.0)	4,049 (100.0)

주: 2019년까지는 조사기반, 2020년부터는 등록기반 기준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https://kosis.kr/>)를 기초로 저자 작성

- 차류 가공업의 종사자 대다수는 상용근로자로, 2023년 기준 전체의 66.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부터는 65%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반면,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은 2016년 20.5%에서 2023년 17.7%로 2.8%p 감소하였으며, 2021년 이후부터 비중이 뚜렷하게 낮아짐.<sup>3)</sup>
  -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 비중은 2016년 14.4%에서 2023년 14.9%로 0.5%p 증가, 이는 코로나19 직후 창업 증가 또는 가족 단위 운영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됨.

2) 식료품 제조업의 종사자 성별 구성은 2023년 기준 남자의 비중이 52.7%로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차류 가공업과는 상이한 것으로 파악됨.

3) 식료품 제조업의 종사자 지위별 구성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상용근로자 비중이 73.0%로 차류 가공업에 비해 6.4%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Ⅱ 차류 가공업의 종사자 지위별 종사자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자영업자, 무급가족	580 (14.4)	539 (13.5)	539 (12.3)	593 (13.4)	756 (16.6)	714 (15.2)	713 (15.4)	605 (14.9)
상용종사자	2,576 (63.9)	2,556 (64.1)	2,890 (65.8)	2,742 (62.1)	2,714 (59.7)	3,078 (65.4)	3,077 (66.3)	2,698 (66.6)
임시 및 일용근로자	826 (20.5)	855 (21.5)	944 (21.5)	995 (22.5)	1,035 (22.8)	850 (18.0)	815 (17.6)	715 (17.7)
기타종사자	48 (1.2)	35 (0.9)	21 (0.5)	89 (2.0)	39 (0.9)	68 (1.4)	35 (0.8)	31 (0.8)
계	4,030 (100.0)	3,985 (100.0)	4,394 (100.0)	4,419 (100.0)	4,544 (100.0)	4,710 (100.0)	4,640 (100.0)	4,049 (100.0)

주: 2019년까지는 조사기반, 2020년부터는 등록기반 기준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https://kosis.kr/>)를 기초로 저자 작성

3. 차류 가공업의 생산 현황

- 차류 가공업의 생산량은 2020년 48만 9천 톤에서 2023년 71만 4천 톤으로 약 46.1%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는 58만 4천 톤으로 18.2% 급감함. 반면, 생산액은 2020년 8,664억 원에서 2024년 1조 1,249억 원으로 약 30% 증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임.
  - 생산량 급감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유지된 구조로, 전반적인 제품 단가 상승 또는 프리미엄 제품군 확대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Ⅱ 차류 가공업의 생산량 및 생산액 추이

단위: 톤, 십억 원

연도	생산량	전년 대비 증감률 (생산량)	생산액	전년 대비 증감률 (생산액)
2020	488,646	-	866.47	-
2021	550,608	▲12.7%	911.54	▲5.2%
2022	619,651	▲12.5%	1,064.89	▲16.8%
2023	713,927	▲15.2%	1,123.17	▲5.5%
2024	583,851	▼18.2%	1,124.93	▲0.16%
연평균 증감율	4.6%	-	6.7%	-

주: 차류 가공업의 전체 생산량 및 생산액은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의 생산량과 생산액 합계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생산실적」, 각 연도.

- 침출차는 팬데믹 초기(2020~2021년) 홈카페 열풍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했으나, 이후에는 급격한 생산량 감소세가 뚜렷함.
  - 생산량은 2021년 4만 1천 톤으로 정점에 도달했으나, 2024년에는 1만 3천 톤으로 약 67.5% 감소, 전체 차 시장 내 비중도 5.6%(2020)에서 2.3%(2024)로 축소됨.

- 생산액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1,681억 원에서 2024년 1,885억 원으로 12.1% 증가함.
- 이는 침출차 제품군이 전통적인 대용차 중심에서 벗어나, 유기농, 기능성, 고급 블렌딩티 등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함.

- 액상차는 차 시장 내에서 가장 큰 비중과 높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RTD(Ready to Drink) 제품군의 확대로 인해 2020~2023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임.

- 생산량은 2020년 43만 7천 톤에서 2023년 66만 6천 톤으로 약 52.5% 증가하였고, 시장 내 비중도 89.3%에서 93.3%로 상승하였음. 그러나 2024년에는 생산량이 53만 6천 톤으로 전년 대비 19.5% 줄었고, 비중도 91.8%로 소폭 하락함.
- 생산액은 2020년 5,550억 원에서 2023년 7,084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는 소폭 하락한 7,025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2020년 대비 약 26.6% 성장함.

- 이는 간편한 소비 형태에 대한 선호가 반영된 결과로 RTD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며 구조적인 정체 국면 진입을 의미함.

- 고형차는 차 시장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으로, 특히 젊은 소비층과 기능성 중심의 수요 확산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음.

- 생산량은 2020년 2만 5천 톤에서 2024년 3만 4천 톤으로 40.0% 증가하였으며, 시장 비중도 2020년 5.0%에서 2024년 5.9%로 소폭 상승함.
- 생산액은 2020년 1,432억 원에서 2024년 2,339억 원으로 63.4% 증가하였고, 전체 차 시장 내 비중도 같은 기간 16.5%에서 20.8%로 상승함.
- 이는 분말형, 스틱형 등 간편성과 기능성을 겸비한 고형차 제품군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와 건강기능성 트렌드에 대한 반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Ⅱ 차 유형별 생산량 및 생산액 추이

단위: 톤, 억 원, %

구분	생산량					생산액				
	2020	2021	2022	2023	2024	2020	2021	2022	2023	2024
침출차	27,448 (5.6)	41,012 (7.4)	16,983 (2.7)	12,822 (1.8)	13,346 (2.3)	1,681.7 (19.4)	1,701.0 (18.7)	2,210.2 (20.8)	1,882.3 (16.8)	1,885.0 (16.8)
액상차	436,557 (89.3)	481,516 (87.5)	572,099 (92.3)	665,817 (93.3)	536,007 (91.8)	5,550.4 (64.1)	5,639.4 (61.9)	6,372.5 (59.8)	7,084.3 (63.1)	7,024.8 (62.4)
고형차	24,641 (5.0)	28,080 (5.1)	30,569 (4.9)	35,288 (4.9)	34,498 (5.9)	1,432.6 (16.5)	1,774.9 (19.5)	2,066.2 (19.4)	2,265.1 (20.2)	2,339.5 (20.8)
계	488,646 (100.0)	550,608 (100.0)	619,651 (100.0)	713,927 (100.0)	583,851 (100.0)	8,664.7 (100.0)	9,115.4 (100.0)	10,648.9 (100.0)	11,231.8 (100.0)	11,249.3 (100.0)

주 1) 침출차는 식물의 어린싹이나 잎, 꽃, 줄기, 뿌리, 열매 또는 곡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물에 침출하여 그 여액을 음용하는 기호성 식품을 말함

2) 액상차는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추출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추출액, 농축액 또는 분말)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시럽상 또는 액상의 기호성 식품을 말함

3) 고형차는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 하여 가공한 것으로 분말 등 고형의 기호성 식품을 말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생산실적」, 각 연도.



## 4. 차류 가공업의 판매 현황

- 차류 가공업의 판매량은 2020년 45만 6천 톤에서 2022년 58만 톤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23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24년 기준 55만 8천 톤을 기록함. 결과적으로 2022년을 정점으로 판매량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 반면, 판매액은 2020년 1조 486억 원에서 2024년 1조 2,729억 원으로 2020년 대비 약 21.4% 증가하며, 판매량과는 달리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2024년에는 판매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액은 오히려 전년 대비 1.9% 증가함.
  - 이는 생산비 상승에 따른 단가 상승과 프리미엄 제품군의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

### Ⅰ 차류 가공업의 판매량 및 판매액 추이

단위: 톤, 십억 원				
연도	판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판매량)	판매액	전년 대비 증감률 (판매액)
2020	456,274	-	1,048.6	-
2021	516,862	▲13.3%	1,213.1	▲15.7%
2022	580,871	▲12.4%	1,287.4	▲6.1%
2023	563,694	▼3.0%	1,249.0	▼3.0%
2024	557,522	▼1.1%	1,272.9	▲1.9%
연평균 증감율	5.1%	-	5.0%	-

주: 차류 가공업의 전체 판매량 및 판매액은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의 판매량과 판매액 합계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생산실적」, 각 연도.

- 침출차 판매량은 2021년 3만 9천 톤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수요 감소 영향으로 2023년 1만 1천 톤까지 감소하였다가 2024년에 1만 3천 톤으로 전년 대비 10.0% 증가함. 반면, 판매액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22년 3,044억 원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며 2024년 기준 2,350억 원을 기록함.
  - 전체 차류 시장 내 판매량 비중은 2021년 7.7%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였다가 2023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4년 2.2%로 전년 대비 0.2%p 증가하였음.
  - 전체 차류 시장 내 판매액 비중은 2021년 23.7%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였다가 2023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4년 18.5%로 전년 대비 0.5%p 증가하였음.

### Ⅰ 차 유형별 판매량 및 판매액 추이

단위: 톤, 억 원, %										
구분	판매량					판매액				
	2020	2021	2022	2023	2024	2020	2021	2022	2023	2024
침출차	26,103 (5.7)	39,818 (7.7)	16,104 (2.8)	11,380 (2.0)	12,519 (2.2)	2,188.8 (20.9)	2,877.9 (23.7)	3,043.5 (23.6)	2,252.8 (18.0)	2,350.3 (18.5)
액상차	407,025 (89.2)	450,395 (87.1)	533,920 (91.9)	519,832 (92.2)	505,535 (90.7)	6,397.1 (61.0)	6,970.7 (57.5)	7,160.8 (55.6)	7,321.7 (58.6)	7,366.8 (57.9)
고형차	23,146 (5.1)	26,649 (5.2)	30,847 (5.3)	32,482 (5.8)	39,468 (7.1)	1,899.6 (18.9)	2,282.9 (18.8)	2,669.9 (20.7)	2,915.5 (23.3)	3,011.6 (23.7)
계	456,274 (100.0)	516,862 (100.0)	580,871 (100.0)	563,694 (100.0)	557,522 (100.0)	10,485.5 (100.0)	12,131.5 (100.0)	12,874.2 (100.0)	12,489.9 (100.0)	12,728.7 (100.0)

주 1) 침출차는 식물의 어린싹이나 잎, 꽃, 줄기, 뿌리, 열매 또는 곡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물에 침출하여 그 여액을 음용하는 기호성 식품을 말함

2) 액상차는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추출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추출액, 농축액 또는 분말)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시럽상 또는 액상의 기호성 식품을 말함

3) 고형차는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 하여 가공한 것으로 분말 등 고형의 기호성 식품을 말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생산실적」, 각 연도.

- 액상차 판매량은 2022년 이후부터 전체 판매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20년 40만 7천 톤에서 2022년 53만 4천 톤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3년 이후부터 판매량이 감소세를 보이며 2024년 50만 6천 톤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함. 판매액은 2020년 6,397억 원에서 2024년 7,367억 원으로 2020년과 비교하여 약 15.2% 증가하였으며, 전체 차류 판매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톤당 평균 판매단가는 2020년 15만 7천 원에서 2024년 14만 6천 원 수준으로 다소 하락하였으며, 이는 대량 생산-유통되는 RTD 제품의 가격 경쟁 심화에 따른 것으로 보임.
- 고형차는 판매량과 판매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판매량은 2020년 2만 3천 톤에서 2024년 3만 2천 톤으로 71.0% 증가한 반면, 판매액은 동기간 1,900억 원에서 3,084억 원으로 약 58.4% 증가함.
  - 전체 차류 시장 내 판매량 비중은 2020년 5.1%에서 2024년 7.1%로 2.0%p 증가한 반면, 판매액 비중은 동기간 18.9%에서 23.7%로 4.8%p 증가함.
  - 톤당 평균 판매단가는 2020년 약 822만 원에서 2024년 763만 원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침출차나 액상차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임.
- 차류 가공업의 10인 이상 사업체 수는 2021년 201개에서 2022년 186개로 전년 대비 7.5% 감소, 2023년에는 189개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2021년보다는 낮은 수준임.
  - 10인 이상 녹차 사업체 수는 2021년 30개에서 2023년 26개로 13.3%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14.9%에서 2023년 13.8%로 1.1%p 하락함.
  - 기타 가공차 10인 이상 사업체 수가 2023년 기준 80개로 전체의 42.3%로 다수를 차지함.
  - 울무차, 유자차, 꿀차 10인 이상 사업체 수는 최근 3년간(2021~2023) 거의 변동이 없으며, 이는 해당 품목들이 건강 차로서 일정한 수요 기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 차류 가공업의 10인 이상 사업체 전체 출하액은 2021년 9,202억 원에서 2022년 8,859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9,182억 원으로 반등하여 2021년 수준을 회복함.
  - 기타 가공차 출하액은 2023년 기준 2,352억 원으로 전체의 25.6%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치커리차, 보리차 및 옥수수차가 1,798억 원 (19.6%), 유자차 1,580억 원(17.2%) 순임.
  - 녹차 출하액은 2021년 1,565억 원에서 2023년 1,374억 원으로 감소한 반면, 홍차는 동 기간 236억 원에서 437억 원으로 증가함.
  - 최근 3년간 출하액이 증가한 품목은 홍차, 울무차, 유자차로 2021년 대비 각각 85.0%, 108.7%, 15.3% 증가함.
- 차류 가공업의 10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 출하액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로 2021년 45억 7,800만 원에서 2023년 48억 5,800만 원으로 연평균 3.0%씩 증가함.
  - 치커리 차, 보리차, 옥수수 차는 2023년 기준 업체당 평균 출하액이 85억 6천만 원으로 전체 차류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홍차는 2021년 26억 2천만 원에서 2023년 62억 4천만 원으로 2.4배 이상 급등하며, 업체당 평균 출하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차종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및 심리적 안정 필요, 차 문화 확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유자차는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에는 63억 2천만 원을 기록함. 업체 수는 같지만 출하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제품에 대한 안정적인 시장 기반이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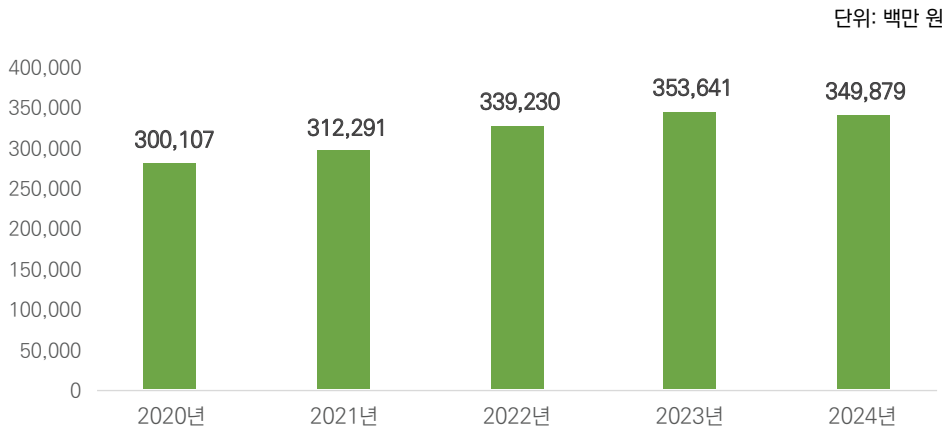
### Ⅰ 차류의 품목별 사업체 수 및 출하액 변화 추이 (10인 이상)

단위: 개, 백만 원, %									
구분	사업체수			출하액			업체당 출하액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녹차	30 (14.9)	27 (14.5)	26 (13.8)	156,493 (17.0)	136,694 (15.4)	137,373 (15.0)	5,216.4	5,062.7	5,283.6
홍차	9 (4.5)	9 (4.8)	7 (3.7)	23,604 (2.6)	32,752 (3.7)	43,679 (4.8)	2,622.7	3,639.1	6,239.9
치커리차, 보리차 및 옥수수차	25 (12.4)	21 (11.3)	21 (11.1)	231,556 (25.2)	193,763 (21.9)	179,782 (19.6)	9,262.2	9,226.8	8,561.0
울무차	12 (6.0)	13 (7.0)	12 (6.3)	33,114 (3.6)	68,849 (7.8)	69,101 (7.5)	2,759.5	5,296.1	5,758.4
유자차	25 (12.5)	25 (13.4)	25 (13.2)	137,044 (14.9)	149,814 (16.9)	158,014 (17.2)	5,481.8	5,992.6	6,320.6
꿀차	7 (3.5)	7 (3.8)	7 (3.7)	29,709 (3.2)	20,126 (2.3)	29,570 (3.2)	4,244.1	2,875.1	4,224.3
기타 가공차	79 (39.3)	72 (38.7)	80 (42.3)	238,489 (25.9)	196,267 (22.2)	235,195 (25.6)	3,018.8	2,725.9	2,939.9
인삼차	14 (7.0)	12 (6.5)	11 (5.8)	70,249 (7.6)	87,659 (9.9)	65,534 (7.1)	5,017.8	7,304.9	5,957.6
계	201 (100.0)	186 (100.0)	189 (100.0)	920,258 (100.0)	885,924 (100.0)	918,248 (100.0)	4,578.4	4,763.0	4,858.5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 최근 5년간 국내 오프라인 소매점 액상차 매출액은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20년 3,001억 원에서 2023년 3,536억 원으로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5.6%씩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1% 감소한 약 3,499억 원을 기록함.

국내 오프라인 소매점 액상차 매출액



자료: aT FIS 식품산업통계정보 소매 POS

- 국내 오프라인 소매점 유형별 액상차 매출액은 소매점 유형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변화하고 있음. 특히, 편의점 중심으로 액상차 오프라인 시장이 개편되고 있으며, 소형 유통채널(독립슈퍼·일반식품점)은 최근 5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각각 6.1%, 8.7% 감소하는 등 급속한 위축을 겪고 있음.
- 소비자의 유통 선호 변화와 도시화,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이며, 향후 액상차 브랜드 및 제조사는 채널별 맞춤 전략 수립이 필요함.

국내 오프라인 소매점 유형별 차 매출액

단위: 백만 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율
대형할인마트	15,401 (5.1)	19,273 (6.2)	21,682 (6.4)	20,926 (5.9)	20,883 (6.0)	7.9%
체인슈퍼	19,482 (6.5)	19,938 (6.4)	21,645 (6.4)	21,428 (6.1)	20,557 (5.9)	1.4%
편의점	212,730 (70.9)	221,781 (71.0)	246,068 (72.5)	268,472 (75.9)	270,884 (77.4)	6.2%
독립슈퍼	21,886 (7.3)	21,435 (6.9)	21,155 (6.2)	18,283 (5.2)	16,999 (4.9)	-6.1%
일반식품점	29,645 (9.9)	29,246 (9.4)	28,679 (8.5)	24,532 (6.9)	20,556 (5.9)	-8.7%
백화점	963 (0.3)	619 (0.2)	-	-	-	-
계	300,107	312,291	339,230	353,641	349,879	3.9%

자료: aT FIS 식품산업통계정보 소매 POS

- 최근 5년간 국내 액상차 시장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품목은 기타차로,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매출액은 2022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음.
- 홍차는 연평균 26.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0년 352억 원에서 2024년 908억 원으로 2.5배 이상 급증, 이는 프리미엄·수입 홍차에 대한 수요 확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 옥수수차는 전통적으로 높은 매출 비중(18% 내외)을 차지했으나, 최근 5년간 지속적인 감소세(-5.4%)를 보여, 기능성이나 맛 다양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국내 액상차 품목별 소매점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율
기타차	189,926 (63.3)	195,437 (62.6)	206,469 (60.9)	194,414 (55.0)	187,297 (53.5)	-0.3%
홍차	35,259 (11.7)	42,113 (13.5)	59,632 (17.6)	84,655 (23.9)	90,863 (26.0)	26.7%
옥수수차	54,295 (18.1)	53,050 (17.0)	53,534 (15.8)	47,425 (13.4)	43,428 (12.4)	-5.4%
녹차	9,741 (3.2)	10,483 (3.4)	10,485 (3.1)	17,964 (5.1)	19,126 (5.5)	18.4%
혼합차	10,887 (3.6)	11,209 (3.6)	9,111 (2.7)	9,182 (2.6)	9,165 (2.6)	-4.2%
계	300,107	312,291	339,230	353,641	349,879	3.9%

자료: aT FIS 식품산업통계정보 소매 POS

5. 차류 가공업의 수출입 현황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차류 수출은 액상차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고형차와 침출차 등 고부가 제품군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품목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액상차는 전체 차류 수출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수출량 2만 5,887톤, 수출액은 9,391만 달러로 각각 90.8%, 70.8%를 차지함. 다만, 과거 대비 수출 비중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는 기존 수출 주력 품목의 성장 둔화 또는 경쟁 심화를 의미함.
- 고형차는 수출량과 수출액 모두 빠르게 증가하며, 수출량은 2020년 567톤에서 2024년 2,003톤으로 약 3.5배 증가, 수출액은 동기간 798.4만 달러에서 2,033만 달러로 2.5배 이상 증가함. 이에 따라 고형차의 수출액 비중도 9.3%에서 16.9%로 증가하며,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서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음.
- 침출차는 수출량과 수출액 모두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수출량과 수출액은 각각 626톤, 621만 달러로 전체의 약 2.2%, 5.2% 수준임.

차 유형별 수출량 및 수출액 추이

단위: 톤, 만 달러, %

구분	수출량					수출액				
	2020	2021	2022	2023	2024	2020	2021	2022	2023	2024
침출차	471 (1.4)	532 (2.0)	558 (1.6)	439 (1.7)	626 (2.2)	737.4 (8.5)	722.6 (7.0)	631.3 (5.3)	641.3 (5.6)	620.7 (5.2)
액상차	32,069 (96.9)	25,037 (94.7)	32,391 (94.6)	23,191 (92.4)	25,887 (90.8)	7,093.2 (82.2)	8,003.1 (77.6)	9,680.3 (80.8)	9,076.1 (79.0)	9,390.8 (78.0)
고형차	567 (1.7)	861 (3.3)	1,275 (3.7)	1,480 (5.9)	2,003 (7.0)	798.4 (9.3)	1,587.4 (15.4)	1,676.1 (14.0)	1,769.1 (15.4)	2,033.0 (16.9)
계	33,107 (100.0)	26,430 (100.0)	34,224 (100.0)	25,110 (100.0)	28,516 (100.0)	8,629.1 (100.0)	10,313.2 (100.0)	11,987.7 (100.0)	11,486.5 (100.0)	12,044.5 (100.0)

주 1) 침출차는 식물의 어린싹이나 잎, 꽃, 줄기, 뿌리, 열매 또는 곡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물에 침출하여 그 여액을 음용하는 기호성 식품을 말함

2) 액상차는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추출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추출액, 농축액 또는 분말)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시럽상 또는 액상의 기호성 식품을 말함

3) 고형차는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 하여 가공한 것으로 분말 등 고형의 기호성 식품을 말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생산실적」, 각 연도.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차류 수입은 홍차 중심의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녹차 수입은 소규모이지만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홍차는 2024년 기준 전체 수입량의 97.9%, 수입액의 97.1%를 차지하며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수입량은 2020년 1,362톤에서 2024년 1,628톤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수입액 또한 동 기간 2,077.3만 달러에서 2,358.2만 달러로 증가함.
- 녹차는 전체 수입의 2~3% 수준에 불과하지만, 수입량은 2020년 11.9톤에서 2024년 40.9톤으로 약 3.4배 증가, 수입액도 동기간 동안 44.7만 달러에서 96.3만 달러로 두배 이상 증가함. 이는 프리미엄 유기농 녹차 또는 기능성 녹차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해외 브랜드 녹차에 대한 관심 확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차 유형별 수입량 및 수입액 추이

단위: 톤, 만 달러, %

구분	수입량					수입액				
	2020	2021	2022	2023	2024	2020	2021	2022	2023	2024
녹차	11.9 (0.9)	23.1 (1.6)	25.1 (1.5)	31.6 (2.1)	40.9 (2.5)	44.7 (2.1)	64.5 (2.6)	71.1 (2.7)	69.1 (2.9)	96.3 (2.9)
홍차	1,361.7 (99.1)	1,437.8 (98.4)	1,601.4 (98.5)	1,501.5 (97.9)	1,628.2 (97.9)	2,077.3 (97.9)	2,425.2 (97.4)	2,551.2 (97.3)	2,328.2 (97.1)	2,358.2 (97.1)
계	1,373.6 (100.0)	1,460.9 (100.0)	1,626.5 (100.0)	1,533.1 (100.0)	1,669.1 (100.0)	2,122.0 (100.0)	2,489.7 (100.0)	2,622.3 (100.0)	2,397.3 (100.0)	2,454.5 (100.0)

주: 관세청 차류 HS 코드 녹차 및 홍차(0902.10.0000 ~ 0902.40.0000)를 합친 것임.

자료: 농식품수출정보(Kati) 홈페이지. (검색일: 2025. 7. 20.)



## 6. 최근 차(茶) 시장 트렌드

- 최근 차(茶) 시장은 건강과 힐링 트렌드, MZ세대의 뉴트로 감성, 프리미엄 티 문화 확산 등 다수의 요소가 결합하여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① 웰빙·헬시플레저 중심 건강 트렌드 강화

- RTD(Ready-to-drink)차의 인기는 실용성과 건강 이점을 동시에 제공하며, 저당, 유기농, 기능성 강조 전략이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녹차의 항산화, 항염, 항암 등 기능성 측면이 주목받고 있으며 '내적 건강' 소비 욕구에 부합하고 있음.

### ② MZ세대 뉴트로 감성 + 체험 소비 자극

- MZ세대(밀레니얼+Z세대)는 전통문화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 감성 경험 소비를 중시하며, 이는 한옥 카페, 팝업 이벤트, 시음형 브랜드 체험 강화로 이어짐.
- 특정 티 브랜드(예: 오설록)의 "나만의 차 만들기", 티 브루잉 클래스 등은 체험 요소 중심 소비를 적극 반영 중임.



〈오설록 '나만의 블렌디드 차 만들기'〉



〈티 브루잉 클래스〉

자료: 오설록 홈페이지 (<https://www.osulloc.com/kr/ko/store-introduction/312?srltid=AfmBOorQUt4FgLRDeJO0a7y kuQhYXQF8lnUTXKm5n0LZ-0EGhD7tMNn0>); 한국일보(2024.11.14.) "한 달 전 예약 필수... 90분간 3잔 출력, '티마카세 데이트' 뜬다".

### ③ 아이스 차 & RTD 확산

- 과거 따뜻하게 마시던 차가 아이스 음료, RTD 제품으로 다양하게 출시되어 소비채널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생강차·쌍화차·유자차가 인기를 끌고 있음.
- RTD 차 시장의 글로벌 규모는 2024년에 395억 달러 규모였으며, 향후 5.8%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Global Market Insight, 2025).<sup>4)</sup>



〈이디야 커피의 아이스 생강차〉



〈차 RTD 제품〉

자료: 이디야 아이스 생강 (<https://gift.kakao.com/product/6492917>); 지마켓 홈페이지(<https://item.gmarket.co.kr/item?goodscode=4314185557>).

4) <https://www.gminsights.com/industry-analysis/rtd-tea-market> 자료를 참고함.

### ④ 프리미엄 티 문화 확산

- 오설록은 2024년 9,370억 원 매출, 영업이익 920억 원을 기록하며, 티하우스 체험 강화와 PB 프리미엄 제품 확장 중심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해외의 프리미엄 티 브랜드(예: Fortnum & Mason, Harney & Sons 등)는 맞춤형 경험과 고급 분위기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시장을 확장 중 임.
- 국내 유명호텔(예: 포시즌스, 롯데, JW 메리어트 등)는 '애프터눈 티 세트', '티 페어링 코스' 등을 통해 호텔 티타임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차를 단순한 음료가 아닌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



〈JW 메리어트 호텔〉



〈포시즌스 호텔〉

자료: 매일일보(2024.6.14.)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더 라운지' 스위트 플레저 애프터눈 티 선택"; 포시즌스 프레스룸(2025.5.30.) "포시즌스 호텔 서울, '101일의 여름' 애프터눈 티 출시".

## 7. 시사점

- 국내 차류 가공업체의 약 80%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반면, 업체당 평균 출하액은 2021년 45.78억 원에서 2023년 48.58억 원으로 연평균 3.0% 증가했지만, 이는 상위 업체에 매출이 집중된 결과이며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보기 어려움.
- 차 산업의 구조 고도화 없이는 생산 효율성 확보, 품질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기반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생산성 향상, 제품 표준화 등이 필요함.
- 국내 오프라인 소매점 유형별 액상차 매출액을 살펴보면, 편의점의 비중은 2020년 70.9%에서 2024년 77.4%로 증가한 반면, 소형 유통채널(독립 슈퍼, 일반식품점) 비중은 각각 4.9%, 5.9%로 감소함. 또한 온라인 유통 채널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소 차 제조업체는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의존도가 높고, D2C 역량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편의점, 카페, 온라인 쇼핑 등 성장 중인 채널에 특화된 제품 기획이 필요하며, 기존 전통 채널은 고령층·보수 소비층 중심의 맞춤형 상품군 재구성을 통해 유지 또는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차 산업은 내수 중심 구조에 치우쳐 있으며, 수출 비중은 낮고 품목도 편중되어 있음. 2024년 기준 차류 수출량은 2만 8,516톤, 수출액은 1억 2,044.5만 달러에 불과하며, 전체 중 액상차가 수출량의 90.8%, 수출액 78.0%를 차지하고 있음.

- 고품차는 수출 비중이 작지만 최근 5년간(2020~2024)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0년 798.4만 달러에서 2024년 2,033만 달러로 154.7% 증가함.
- 차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액상차 중심에서 벗어나 고품차와 침출차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 전략 품목화를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품질 관리 체계 강화 및 FDA, GMP, HALAL 등 해외 인증 취득 지원이 필요함.
- 또한 기능성 차에 대한 과학적 효능 검증과 영문 자료화를 통해 글로벌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야 하며, K-헬스 및 K-푸드와 연계한 문화 기반 마케팅, 현지 유통망 협력, 해외 박람회 및 바이어 상담회 확대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해야 함.

- 최근 차 소비는 건강과 힐링을 중시하는 헬시플레저 트렌드, MZ세대의 뉴트로 감성 소비, 프리미엄 티문화의 확산, RTD 및 아이스 차 음용 확대를 중심으로 다변화되고 있음. 소비자들은 단순한 기호음료가 아닌, 기능성과 감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차를 선호하며, 티하우스, 카페, 호텔 등에서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차 산업은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건강 기능성 중심의 고부가가치 제품 기획이 필요함. 특히 항산화, 수면 개선, 면역력 강화 등 소비자 효능 인식이 가능한 차별화된 제품 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 및 스토리텔링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경험 중심의 마케팅 전략 강화가 필요하며, 차를 단순히 판매하는 것을 넘어, 티카페, 블렌딩 클래스, 브랜드 팝업 스토어 등 소비자 체험을 유도하는 콘텐츠 기반 유통·홍보 전략이 MZ세대 공략에 효과적임.
- 편의점·온라인 중심 유통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RTD 제품 개발과 소용량·개별포장 제품 확대도 병행되어야 함. 산업 전반에 걸쳐 '기능성+감성+편의성'의 조화를 중심으로 차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품 기획 및 유통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저자 정보

- 이동소 전문연구원(061-820-2149), petit211@krei.re.kr